

# 인생 2막 설계에서 차원적 접근에 관한 연구\*

윤 여 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 국문초록

인생 100세 시대, 평생직업시대의 도래는 일정한 시점에서 통상적인 인생 1막에서 물러나서 인생 2막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이 시도에 해당하는 것이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부터 인생 2막과 인생 2막 설계에 관한 저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이 저술들은 인생 2막 설계에 통찰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참조 하되 종합적 통합적 조망을 위해 삶에 접속하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는 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 차원과 각 차원을 대하는 태도를 고찰하고 각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작업은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을 권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생 1막에서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과정을 치유의 과정과 병행할 것을 권하였다.

■ 주제어 ■ 인생2막, 인생2막 설계, 차원적 접근, 치유, 평생교육

\* 이 논문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제30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인생 2막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주제'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한 내용을 소논문의 형태로 보완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 ykyun@knou.ac.kr

## I 서론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생 100세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고용 형태가 변화되고 퇴직과 전직이 반복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평생직업시대도 열리게 되었다.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자기 소유의 집에서 그동안 축적한 재산을 활용하고 자녀의 돌봄을 받으며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관한 예견이 일찍부터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한 담론도 계속 증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제2의 인생 또는 인생 2막과 같은 용어도 등장하였다. 크게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 전반부를 제1의 인생 또는 인생 1막으로, 후반부를 제2의 인생 또는 인생 2막으로 명명한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전환을 위한 여건이 누군가에 의해 또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준비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 또는 인생 2막 설계와 같은 용어도 등장하였다. 새롭게 삶이 펼쳐진다는 의미는 같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진 삶의 무대가 달라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인생 2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인생 1막과 인생 2막이 분절되어 있지는 않다. 똑같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점에서 인생 1막의 토대 위에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생 1막에서 인생 2막으로 전환할 필요가 발생하고, 이 필요에 대처하는 일이 당사자에게는 중요하고 절실하므로 인생 2막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지에

관한 담론이 ‘인생 2막 설계’라는 범주 아래 확산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인생 1막에 이어 인생 2막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어느 한 시점으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생 1막이 학창 생활에 이어 직업 생활도 해 본 후에 개인적으로 인생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 준비와 더불어 인생 2막이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준비 기간이 일종의 막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막간을 겨냥한 탐색적 저술과 연구에 기반한 저술도 증가하였다.

깊은 성찰에서 나온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의 저술<sup>1)</sup>로는 라이더(Leider, 2005/2020), 톨레(Tolle, 2005/2013), 브룩스(Brooks, 2023/2024), 다카시(齊藤孝, 2018/1019), 시겔과 현(Siegel & Hurn, 2020/2021), 라우시(Rauch, 2020/2021) 등이 있다. 라이더는 상담 전문가로서 삶을 성찰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찾을 것을 권한다. 인생에서 파도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자기만의 목적이 있다면 길을 잃더라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해왔고, 어떤 재능을 갖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자신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톨레는 21세기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개인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자기 예고를 바라보는

---

1) 이 문단과 다음 문단에 소개하는 외국의 저술은 인생2막연구소와 인생2막책방 대표를 맡고 있는 지희숙 박사가 정리하여 제공한 내용을 활용하여 재조직하였음을 밝힌다. 지희숙 박사는 인생 2막 관련 저술을 읽고 10가지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나침반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인생 2막 나침반이 되는 책, 200선’과 ‘405060 여성의 한발 앞선 미래 준비’를 출간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지희숙 박사의 사유와 실천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작성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지희숙 박사의 논의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깊은 성찰로 풀어가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삶의 기쁨을 인식할 때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브룩스는 사회학자로서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개인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 보고 두 번째 도약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한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예컨대 사회적 직업적 하강을 후회하거나 분노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하지 않고 또 다른 성장과 초월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다카시는 일본에서 교육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50대가 일본에서 맞이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설명하고, 자기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50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안내한다. 시겔은 일반외과와 소아외과에서 퇴직한 이후 환자 지원 단체를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현은 동물과 야생조류 구조 활동에 앞장서 온 경험을 토대로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상실, 상처를 극복해 가는 지혜를 나눈다. 이들은 삶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힘을 깨닫고 이를 통해 치유의 길을 찾아나갈 것을 권한다. 라우시는 브루킹스 수석연구원으로서 연구에 기반하여 나이 들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게 한다. 라우시에 의하면, 성장-절정-위기-쇠퇴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40대에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50 이후부터 반등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인생 전환기라는 것이 라우시의 주장이다. 그는 중년과 노년 사이에 출현하는 새로운 인생 단계를 ‘앙코르 성인기’(encore adulthood)라고 부른다. 이 시기는 예리한 인지

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숙련된 기술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시기이며, 가족과 지역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다. 라우시의 이러한 시기 규정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사회적 부’(social wealth)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인생 2막 설계와 관련된 외국의 저술들도 있다. 그래튼과 스콧(Gratton & Scott, 2016/2020, 2020/2021), 그래튼(2022/2023)이 대표적이다. 비즈니스 사상가로 잘 알려진 그래튼과 런던경영대학교 교수이자 스탠퍼드대학교 장수연구센터 자문교수도 맡고 있는 스콧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일-퇴직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3단계의 삶은 무너지고 있으므로 이제는 100세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통적인 3단계에서 연장된 다단계 시나리오를 구상하여야 하며,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생산에 도움이 되고, 활력 있는 삶에 기반이 되며,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자산)에도 주목한다. 이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어서 기술의 변화와 길어진 삶이 함께 만드는 변화에 주목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그리는 것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간다. 그리고 다양한 조건의 인물을 사례로 자신의 논의를 적용하여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작업도 하였다. 최근에 그래튼은 자동화로 산업이 재편되고 직무가 바뀌고 수명도 늘어나서 70대까지 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기존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기로 일을 재설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인생 2막과 관련하여 국내의 저술도 증가하고 있다. 남경아(2024), 김찬호(2024)가 베이비부머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면, 김찬호 외(2017)와 고영직 외(2021)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 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김찬호·고영직·조주은(2018)은 구술생애사를 토대로 진전된 논의를 전개한다. 남경아는 희망제작소에서의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인생 이모작 자원 사업에 참여하고, 50플러스재단에서 관장 및 본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베이비부머가 ‘세대 연결자’로서 이전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노년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삶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예시하고 있다. 김찬호는 베이비부머로 태어나 노년으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경험한 것들에서 40개의 주제어<sup>2)</sup>를 길어올리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김찬호는 사회학자로서 격랑의 현대사를 주도해 온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의 생활양식에서도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40개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이에 답하는 방식을 취한다. 김찬호 외는 먼저 산 자인 ‘선배시민’으로서 단단한 인생 2막을 위하여 생성, 성숙, 경험, 불복종, 창조, 참여를 화두로 한 선배 수업을 제시한다. 고영직 외는 신중년이 생애 전환을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보고, 생애전환 학교에서 모험을 디자인하는 문화예술수업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전환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전환이 되도록 하는 데 초

---

2) 40개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파국, 하산, 정정함, 전환, 눈물, 스토리텔링, 연민, 응시, 공동체, 경로, 힘로, 복지, 손님, 자존, 망상, 고백, 지피지기, 멈춤, 쫓대, 이순, 경청, 교학상장, 쓴소리, 탐구, 책, 유산, 독서, 도서관, 육아, 성숙, 보람, 선배, 시간, 후회, 상실, 유병장수, 연명, 존엄, 마음, 우선순위.

점을 맞추면서도 그 전환이 사는 동안 끝나지 않는 실험 같은 것이길 기대한다. 김찬호·고영직·조주은은 구술생애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 2막, 희망의 노년, 성숙한 중년을 화두로 삼아 논의를 진전시킨다.

지금까지 인생 2막 관련 저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저술을 통해 인생 2막이나 인생 2막 설계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분석 틀이 있으면 이를 토대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들 저술을 토대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삶에서 고려해야 하는 차원을 고찰해 봄으로써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을 갖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인생 2막 준비에 대한 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다차원적이며, 각 차원이 복잡하게 접속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일리가 있다.

## II 논의의 틀: 삶에 필요한 요소와 이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살아 있다’ 또는 ‘살아간다’고 말할 때 여기에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다. 활동하지 않으면, 살아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다.<sup>3)</sup> 그러므로 삶에서 활동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에 접속하는 다양한 차원이 있으며, 이 차원들이 삶에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시간, 공간, 물질, 관계가 그 대표적인 차원이다. 그런데

3) 이 점에서 활동이라는 동사 형태로 살아가는 삶을 소유하고 실천하기도 한다(박동섭, 2021).

시간, 공간, 물질, 관계 각각에 활동이 접속한다는 점에서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을 삶의 대표적인 차원이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sup>4)</sup>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물질을 활용하면서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으며 활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sup>5)</sup> 인생 1막이든 인생 2막이든 이러한 양상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인생 2막에는 인생 1막과 그 구체적인 양태가 다를 것이다.

이 양태는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미 삶을 살아온 여정이 있으며, 여기에는 축적된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통해 형성해서 현재 동원하는 관점들이 있다. 구체적인 개인의 구체적 삶의 여정은 다 다르므로 경험의 내용과 그 경험을 통해 형성한 관점들도 다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관점의 영향을 받는 태도 역시 다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맥락 또는 연구의 맥락에서 분류를 시도하고, 몇 가지 구분되는 양태를 도출한 후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연구하게 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이원 분류다.<sup>6)</sup> 두 가지로 분류한 것 내에 그리고 두 가지로 분류한 것 사이에 다수의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므로 이원 분류는 잠정적이며 가설적이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달라지면 분류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여기서는 활동에 접속하는 시간, 공간, 물질, 관계의 배치를 생각해 보았지만,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 각각에 접속하는 다른 배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겪는 변화를 중심에 놓고 여기에 접속하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분야, 수준, 단계, 순환이 따라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분야마다 수준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으며, 이 수준에는 단계가 있고, 단계를 거쳐 수준을 향상하는 노력은 순환된다.

5)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평범한 진리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삶의 다섯 가지 차원 또는 삶의 중요한 요소도 여기서 도출된 것이다.

6)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 각각에 대한 두 가지 태도의 다양한 맞물림으로 다양한 양태의 삶이 전개될 수 있다.

예컨대, 삶에서 지향하는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빛과 그림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지만,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환대와 돌봄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책임 의식도 갖추어 나가는 긍정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태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하는 정도, 즉 강도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 이외에 다른 요소는 없는가’라는 질문도 제기할 수 있다. 삶을 살아가는 활동을 중심에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제도를 주요 요소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활동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의 구속을 받으며, 그 제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제도는 활동의 배경으로 볼 수도 있고, 제도에 따라 활동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활동에 제도가 불박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인간의 활동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에서 벗어나 있을 여지 또한 존재하므로 제도는 잠정적으로 주요 요소의 후보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삶의 주요 요소는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에 한정해서 이들을 주요 요소로 보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이라는 차원을 삶의 요소로 볼 때 이를 대하는 태도가 있고, 요소와 태도가 이루어내는 변주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각 요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다른 양태의 변주가 나타날 것이다.

### 1.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인생 2막은 인생 1막을 거쳐 맞이하는 것이다. 인생 1막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도 인생 2막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 2막은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하고, 이 준비가 자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절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느끼면 준비를 위한 시간이 소중하게 인식되고, 그 시간은 함부로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은 무엇보다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이다. 즉,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 왔고,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 현재 자기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보는 ‘인생 점검기’를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성찰하는 것 자체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나온 인생을 점검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자기의 두드러진 앎과 능력의 영역 및 수준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모든 영역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 일을 했으므로, 그 영역에 관한 앎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그 앎이 기반이 되어 발휘되는 능력 또한 그 영역에 특화되어 있다. 모든 영역에서 범용성을 갖는 기초가 존재하지만, 영역으로 구분되는 만큼 특수한 전문성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영역에서 일을 하며 지낸 시간은 관련된 앎과 능력의 수준을 향상해 온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자산일 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sup>7)</sup> 그의 앎과 능력으로 일을 하였고, 이 일 덕분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중층적 사회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동안 형성한 앎과 능력이 상황의 힘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형성한 것일 수도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이 있고, 이 자질을 토대로 소질을 계발하게 되는데, 어떤 영역에 자질이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일을 선택하고, 일해온 영역에서도 그 자질로 펼쳐 나갈 다양한 가능성 중에 특정한 가능성만 구현해 왔을 수도 있다. 어쩌면 자기의 자질을 억누르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질을 계발하여 일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다른 선택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인생 점검기에 자기의 자질과 소질을 점검해 보고, 그에 맞는 일을 찾아 준비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그중 하나가 예기치 않은 죽음이다. 예기치 않은 죽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에서

---

7) 앎과 능력은 교육(달리 말하면, 교수자의 조력을 받기도 하는 학습)을 통해 함양되고 증진되므로, 이에 관한 자기 관리 또는 이를 자산으로 보는 국가의 관리 맥락에서 학습계좌제(또는 학습이력 관리제)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학습계좌제는 현재 교육부에 소속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는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누군가의 죽음이 중간에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자기 죽음으로 마감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갈릴 수 있다. 하나는 조급함이며, 다른 하나는 여유로움이다. 조급함은 목표를 달성할 시간을 짧게 설정할 때 나올 수 있으며, 여유로움은 목표를 설정하면서도 그 달성에 걸릴 시간을 길게 설정할 때<sup>8)</sup> 나올 수 있다. 물론 생계 문제가 걸렸을 때 후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노년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식의 성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뒷받침하다가 정작 자기의 생활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면서 인생 2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을 들여 쓰임 받는 앎과 능력의 수준 확보를 위해 학습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성공하기보다 실패한 경험이 많고,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여건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편으로는 조급해하다가 결과적으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sup>9)</sup> 전자든 후자든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이 지원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를 중시하는 평생교육의 접속이 필요하다.

---

8)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에서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과 맞이할 삶을 예견하는 전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준비는 기본적으로 긴 호흡을 요청한다.

9) 물론 이것이 노년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삶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취약 계층이 있으며, 이들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 2. 공간을 대하는 태도

사람은 한곳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곳으로 이동하며 살아간다. 가정에서 살다 학교를 오가고, 학교교육을 마치면 가정과 직장을 오가는 삶을 살다가, 최근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를 따라 가족이 사는 집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도 하고, 직장을 따라 역시 가족이 사는 집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딘가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하는 집이 자가이든 임대이든 거기서 사는 당사자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되며, 그 집을 중심으로 이동해서 오가는 모든 공간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장소에는 삶의 흔적이 있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에게 장소가 되기도 하는 공간은 남다르게 된다.

현재 사는 공간 범주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인생 2막을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를 염두에 둔 공간 이동은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아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그러나 인생 1막을 살아낸 공간이 오히려 불편했다면 인생 2막을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하는 결단이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2막은 어떤 식으로든 공간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이것은 가정이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할 준비를 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려고 이동하는 모든 공간이 달라지므로 당사자의 위치에

서 재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인구 소멸과 관련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노년은 지속적으로 생기므로 전체적으로 인구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특정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고 남아 있는 사람은 소수로 그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지역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이 된다.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면 사람이 일하는 공간의 모습도 달라진다. 공간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지만, 공간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 흐르는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듯, 머무르는 공간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공간을 점유하며 산다는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공간은 사적 공간도 있고, 공적 공간도 있다. 공적 공간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sup>10)</sup>이라는 의미도 있다. 한 개인에게는 사적 공간도, 공적 공간도 다 소중하다. 사적 공간이 전혀 없는 개인의 삶은 여백이 없는 숨 막히는 삶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공적 공간이 전혀 없는 개인의 삶은 공사의 구분도 없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삶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개인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를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적 공간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공간에서 일할 기회를 갖기를 기대하고, 그 일을 통해 타인에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10) 경기도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실천협의회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을 하면서 공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윤여각, 2024: 130-132).

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공간을 자기 취향에 맞게 꾸미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것은 사적 공간의 크기나 규모와 관계가 없다. 아무리 작은 사적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그 공간은 자폐적 공간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은 공적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공적 공간에는 함께할 일거리가 있고, 그 일을 위한 사람과 물건이 배치되어 있다. 이 공간은 개인적 성취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성취를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그 공간은 타인의 성취에 조력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성취로 보람을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평생교육이 일상화된다.

### 3.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의 주위에는 언제나 물질이 있다. 사람조차도 생명 현상을 위해 작동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없는 삶, 또는 물질과 연루되지 않은 삶이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물질은 영양을 공급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동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종교적인 맥락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연은 관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삶에 필요한 것을 채취하거나 잡거나 캐내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은 자연 못지않게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물건을 더 많이 접하고 사용하기도 한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것들로 가득하며, 문명의 이

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sup>11)</sup>

물질은 특히 과학기술 발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과학기술 역시 물질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물질의 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역으로 입증해 준다. 현대에 들어와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물질로 작동하는 컴퓨터 덕분이다. 사람의 두뇌 작용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공지능도 물질성을 갖는 것에서 예외일 수 없다. 사람이 맞이하는 미래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디지털 제품이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몸이 하는 기능의 확장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확장은 사람의 몸을 대체하는 것으로 진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과 물질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유가 등장하였다.<sup>12)</sup>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물질로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일부를 대체하고, 이 물질이 몸의 다른 부분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작동하게 하는 흐름은 이러한 사유를 촉진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서 경제적 거래의 맥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화폐다. 이제는 이 화폐를 가축 지갑에 넣어 다니지 않고 전자 지갑에 넣어 가상 화폐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가상적인 성격이 있지만, 이것을 작동하게 하는 거대한 물질적 기반을 도외시할 수 없다. 화폐는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물질을 구입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데 두

---

11)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자기가 직접 만들지도 않고, 직접 작동하지도 않는 수많은 물질에 둘러싸여 그것들을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12) 이러한 사유를 '신물질주의'라고 하며, 이에 따른 연구 사례로는 김은아(2023)가 있다.

루 쓰이므로 화폐가 없거나 너무나 조금 가지고 있다면 생존조차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화폐는 최소한의 생존 기반이 되고, 이러한 화폐를 임금이나 수입의 형태로 확보하려는 노력은 현대사회에서 당연하다. 인생 2막을 위한 준비에서도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

인생 2막에서도 사람은 물질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크게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물질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물질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 고갈이 일어나고 환경이 오염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물질을 수단으로 활용한 결과 맞이한 부정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갈될 자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특정한 자원은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혁명을 이루어내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지속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 에너지로 작동하는 물질을 활용하게 되면 지구촌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교환 가치를 갖는 화폐가 중요하지만, 이 화폐를 공유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늘려갈 수도 있다. 공유 가치에 주목하면 물질에 대한 설계, 그 물질의 사용, 물질들의 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자연에서 나오는 산물의 공유 가치에도 주목하면, 사람은 물질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공존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 물질을 독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이 독점으로 발생하는 이득을 전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람의 몸도 점점 건강성을 회복해 갈 것이다. 여기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어서 평생교육과의 접속이 필요하다.

#### 4. 관계를 대하는 태도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공간에서 물질과 함께 물질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관계의 맥락이 있다. 물질과의 관계 못지않게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나고, 다른 사람에 둘러싸여 성장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많은 일을 한다. 사람이 발휘하는 모든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며 그 가능성 발현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의 가능성 발현을 억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영향을 받아 그 가능성이 발현되지 않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서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들어와 사람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계속 종속당하지 않고, 또는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으

로 이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주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주장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노력하고 조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능력에는 인지 측면, 실행 측면, 관계 측면이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의 어우러짐을 통해 한 사람의 능력 수준이 드러나게 된다. 높은 인지 수준과 실행 수준을 갖추고 있어도 관계 수준이 낮으면,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혼자서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 나가는 태도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중요하다.<sup>13)</sup> 그러므로 관계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발휘되는 능력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생 2막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은 여전히 중요하다.<sup>14)</sup> 이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인생 2막이 원활하게 풀릴 수도 있고, 인생 2막에 예기치 않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다. 여기서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

13) 델로르 외(Delors, et. al., 1996)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설립 이후에도 국제적 갈등이나 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이러한 태도의 결여를 지적하고 교육의 네 기둥 중 하나로 '함께 살아가는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제시하였다.

14) 자녀와 이어지는 관계 및 손주와 새롭게 맺어가는 관계는 가족 간의 관계지만, 타인의 범주에 넣고 생각할 수도 있다.

수 있다.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관계 맺음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맺음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풀아가는 것이다. 전자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후자는 다른 사람을 동반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향은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 나라 간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며, 후자는 공동체 지향을 가질 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취하는 태도다. 여기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대응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게 이것은 고려의 가치가 없다. 그는 상대방을 약자로 만들고, 계속해서 약자의 위치에 머무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을 동반자로 대하는 것은 그를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함께할 때 비로소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취하는 태도다. 상대적으로 더 기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함께한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 차이가 어우러져 함께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동체 지향은 지속적인 평생학습으로 존재 수준을 향상해 갈 것을 요청한다.

## 5. 활동을 대하는 태도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다양한 물질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한다. 순전히 혼자서 하는 활동이 있지만, 이 활동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함이 붙박혀 있지 않은 상황은 거의 없다. 즉, 혼자서 활동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혼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 ‘오타쿠’(おたく)<sup>15)</sup>처럼 방안에 틀어박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에는 언제나 상대가 있으며,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다. 그는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한다. 활동은 존재의 존재-임, 그리고 존재-됨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증거가 된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흐름에서 활동을 단기간의 활동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하는 활동을 생각해야 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맥락에서는 그 이전에 하던 활동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을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어떤 한순간에 인생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는 축적된 시간이 필요하고, 축적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과거의 삶이라는 토대 위에서 현재를 살고, 미래에 기대하는 삶에 비추어 현재를 살기도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을 왜 구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

15) 1980년대 일본에서 주로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컴퓨터 등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만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는 서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지칭했다.

활동을 하려면 아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전자를 앎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앎과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의 세 가지 차원, 즉 인지, 실행, 관계 차원은 그대로 앎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는 줄 알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절한지 안다고 말할 정도로 앎은 다차원적이다. 이러한 앎과 능력의 수준을 향상하는 직접적인 길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다. 학습자 측에서는 배우고 익히는 활동을 하고, 교수자 측에서는 가르치고 확인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과 교수의 선순환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앎과 능력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sup>16)</sup>

인류가 개척해 온 영역이나 분야는 대단히 많으며, 개인은 이 중 일부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은 살아가는 데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한 앎을 토대로 생존이나 실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나 분야의 전문적인 삶에 기초가 되는 것을 학습하고, 전문적인 앎 또는 능력의 수준을 향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이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 활동을 대하는 태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활동의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활동의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전자는 목표를 향한 경쟁을 부추기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후자는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

16) 학습과 교수의 이러한 선순환, 즉 교육을 통해 앎과 능력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준을 향상해야 하는 과제가 수반된다(윤여각, 2021, pp. 278-280).

사람이 활동하면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활동의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 결과는 미래의 모습인데 사람은 이 미래의 모습을 현재에 가져와서 활동을 조율하는 특이성을 보인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부정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활동의 결과로 도달하는 모습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람이 활동하면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며,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활동에 맞물려 있는 사람들 간의 협조적 관계가 강조된다. 학습의 맥락에서도 배우는 것이상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익히는 과정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 학습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과 역시 만족스럽게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활동의 과정은 평생 학습과 접촉하면서 언제나 충실해야 한다.

#### IV 존재로 수렴되는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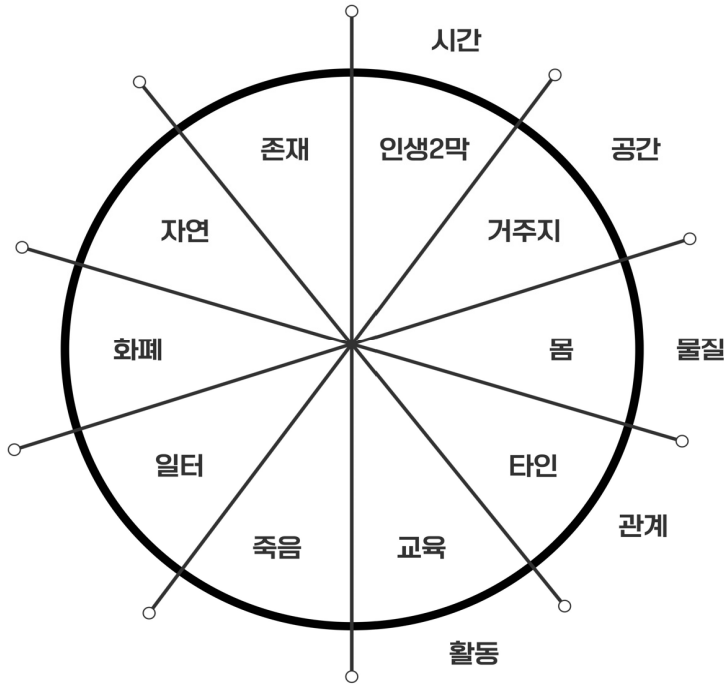
앞에서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각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정도의 논의는 간단한 조합을 드러내는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조차도 복잡한 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

다. 이러한 상반된 태도를 배경으로 하더라도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각 요소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 물론, 각각의 주제에도 상반된 태도가 수반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에 대해 다루지 않고 각 주제를 예시하는 수준의 논의에 머물고자 한다.

인생 2막과 관련하여 새롭게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결국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간 요소와 관련하여 인생 2막 자체와 죽음이라는 주요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거처할 공간과 주로 일할 공간은 공간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요 주제다.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물질도 생략할 수 없는데 부와 맞물려 있는 화폐의 문제와 건강과 맞물려 있는 각자의 몸의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구촌의 지속 가능성과 맞물려 있는 자연,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활동과 관련해서는 각자의 앎이나 능력과 맞물려 있는 교육과 교육을 토대로 활동하면서 그 수준을 향상해야 할 존재를 주요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sup>17)</sup>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

17) 각 주제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만한 주제는 이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추후 논의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은 임의적이지만, 앞서 삶에 중요한 요소 각각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에 기반하여 도출한 것이다.



[그림 1] 인생 2막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주제

인생 2막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언제까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생의 나머지 기간에 생존과 실존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할 때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생 2막 설계도 할 수 있다. 인생 2막이 인생 3막<sup>18)</sup>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사람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는 그제 자신이든 타인이든 가볍지 않다. 아마도 사람은 자기 죽음이 존엄한 죽음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18) 인생 2막을 살다가 다시 인생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인생 3막이 될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인생 3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인생 3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인생 2막 설계가 끝이 있는 여정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인생 2막을 맞이해도 자기 소유가 아닌 집에서 머무를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인구 중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그렇지만 안정적 주거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휴식을 취하는 거처로서의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일할 공간에 대한 인식 확인도 필요하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되든 공동체적 공간이기를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주할 곳과 일할 곳 사이에 있는 여가 공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여가 공간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안정적 주거와 여가를 묶어 생각할 수도 있다.

인생 2막에서도 최소한의 부가 필요하고, 인생 2막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가상화폐까지도 포함하여 돈으로 대변되는 부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생 2막은 특별히 건강 관련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는 시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 2막을 설계하면서 건강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몸은 자기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의 생활 습관과도 맞물려 있으므로 인식과 실천의 대전환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인생 2막에 관한 논의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유행병이 세계적으로 만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중

요한 문제로 강조되었다. 자연은 여가와 관련하여 고려하는 사항 정도였다. 그러나 자원이 고갈되어 갈 뿐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고, 이것이 기후 변화로 나타나면서 지구촌의 대재앙이 예고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sup>19)</sup> 시간도, 공간도, 사람들 간의 관계도, 뒤에 언급할 활동도 자연과의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25년 현재는 자국이기주의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연을 도외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어 맞이할 위험사회의 모습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인생 2막에서도 원하는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의 앎과 능력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활동한다고 할 때, 이를 받아줄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물론, 일자리 찾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할 여력에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의 과제이자 인류의 과제이기도 한 사람의 존재 수준 향상은 많은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를 영성의 차원에서 풀어가든, 여전히 현실의 교육 차원에서 풀어가든 사람의 존재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인생 2막의 설계에서도 중요하다.<sup>20)</sup> 다시 말하면, 인생 2막 설계에서 다양

---

19)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포함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전은희, 2021).

20) 인생 2막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 인생 1막을 살아오면서 갖게 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를 피할 수 없으며, 이것은 존재 수준 향상과 맞물려 있다.

한 주제에 관해 검토하되 이 모든 작업은 존재라는 주제로 수렴되어야 한다.

## V 결론

앞서 소개한 인생 2막 관련 저술들은 대단한 통찰을 제공하며, 그래서 개인이 인생 2막을 설계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술을 참조하는 것이 곧바로 그럴듯한 인생 2막 설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먼저 이러한 저술을 충실히 배우고 충분히 익히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익히는 과정은 현실에 조회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인생 2막 설계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배움이 더 충실해질 수 있으며, 개인이 직면한 현실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인식이 다시 인생 2막 설계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인생 2막 설계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없으며, 여러 번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 번 이루어진 인생 2막 설계대로 삶이 전개되지 않는 양태가 나타난다. 그것은 이 삶에 개입하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수와 변수 간의 역동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설계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인생 2막 관련 저술을 참조하되, 이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여기서는 그 방안으로 차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인생 2막 설계에서 차원적 접근

은 차원들을 서로 구분은 하되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종합적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이점이 있다. 시간, 공간, 물질, 관계, 활동은 삶에서 맞물려 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접속한다. 여기서 는 활동 차원에 다른 차원들이 접속하는 모습에 주목하였으며, 활동 차원에서 교육과 교육을 통해 향상해야 하는 존재라는 두 가지 주제에 주목하였다. 이것은 인생 2막과 인생 2막을 위한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제이면서 동시에 과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활동에 접속하는 시간, 공간, 물질,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활동 자체에 대한 태도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으며, 경험의 축적 과정에서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생 2막은 인생 1막에서 전환하는 것이므로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데, 이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학습력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존재의 맞물림을 의식하고,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하는 공동체 지향은 학습의 결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인생 2막 설계는 혼자서 하기보다는 다수가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학습 동아리를 조직할 수도 있고, 전문가가 조력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전자와 후자는 교육의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양태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인생 2막 설계는 성격상 한두 번의 작업으로 완료될 수 없다.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의 긴 작업이 필요하다. 인생 1막에서 인생 2막으로 전환하는 작업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지나온 삶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찰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 예견하고 소망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차근 차근 접목하는 긴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인생 2막 설계를 하면서 여기서 제시한 요소와 주제와 관련하여 척도를 설정하고 개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요소별로 제시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척도에 점으로 표시하고,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각 주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요소별 주제에 대해 인생 2막을 맞이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역시 척도에 점으로 표시하고,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해 보면 주제별로 현재 시점에서 준비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자기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육적으로 조력하는 데 활용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인생 2막 설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다. 인생 1막에서 인생 2막으로 전환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려움은 인생 1막을 성찰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여곡절이 없는 삶은 없으므로 인생 1막에서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인생 2막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과정은 치유의 과정과 병행해야 한다. 이 또한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교육의 맥락에서 보면 자기 교육의 과정이기도 하다. 인생 1막에서도 교육은 늘 개인의 삶에 접속하고 있다. 인생 2막을 위한 설계, 그리고 인생 2막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육은 늘 개인의 삶에 접속할 것이다. 평생교육은 삶의 한 시기에 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아니라 삶 전반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 논문 투고 일: 2025.07.09
- 심사 완료 일: 2025.08.08
- 게재 확정 일: 2025.08.08

## 참고문헌

- 고영직 외(2021). 『생애 전환 학교: 모험을 디자인하는 신중년 문화예술 수업』, 파주: 서해문집.
- 김미윤(2018). “지역교육과 일”. 윤여각·강영희·김미란·김미윤·송성숙·신민선·이승훈·지희숙·최라영·홍은진. 『지역사회교육론』(1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89-110.
- 김은아(2023). “자료의 존재론: 대패n이 들려주는 자료 이야기”, 윤여각·서근원·서덕희·전현욱·전은희·조지혜·안인기·윤혜경·전가일·강진아·김은아. 『인간 문화 교육』. 서울: 학지사. 303-333.
- 김찬호 외(2017). 『선배 수업: 먼저 산 자, ‘선배시민’의 단단한 인생 2막을 위하여』. 파주: 서해문집.
- 김찬호·고영직·조주은(2018). 『당신의 이야기를 무엇입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희망의 노년 길 찾기』. 파주: 서해문집.
- 김찬호(2024). 『베이비부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마흔 단어』. 서울: 날.
- 남경아(2024). 『오십의 인사이트: 우리 시대 베이비부머가 사는 법』. 파주: 서해문집.
- 박동섭(2021). 『동사로 살다: 관계와 실체를 오가는 삶』. 서울: 빨간소금.
- 윤여각(2021). 『평생교육론의 시선』. 파주: 교육과학사.
- 윤여각(2024). 『평생교육의 접속: 다양한 논의 층위』. 파주: 교육과학사.
- 전은희(2021). “나와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기”. 윤여각·권효숙·배은주·서근원·서덕희·신혜숙·전은희·조용환·최영신. 『문화와 교육』(1개정판).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5-226.

- 齊藤孝(2018). 人生後半の幸福論. 김윤경 역(2019). 『인생 절반은 나답게: 누군가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서울: 심플 라이프.
- Brooks, A. C. (2023). *From strength to strength*. 강성실 역(2024). 『인생의 오후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 더 멋지고 현명한 인생 후반에 대하여』. 서울: 비즈니스북스.
- Delors, J., et al. (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Paris: Unesco.
- Gratton, L. & Scott, A. J. (2016). *The 100-year life*. 안세민 역(2020). 『100세 인생: 전혀 다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 설계 전략』. 서울: 클.
- Gratton, L. & Scott, A. J. (2020). *The new long life*. 김원일 역(2021). 『뉴 롱 라이프: 장수와 신기술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서울: 클.
- Gratton, L. ((2022). *Redesigning work*. 김희주 역(2023). 『일을 디자인하라: 변화의 시대에 직원의 만족도와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실천 전략』. 서울: 클.
- Leider, R. J. (2005). *The power of purpose*. 정지현 역(2020). 『과도치는 인생에서 다시 길을 찾는 법: 삶의 목적으로 찾아가는 필생의 로드맵』. 서울: 위즈덤하우스.
- Rauch, J. (2019). *The happiness curve: Why life gets better after 50*. 김고명 역(2021).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찾아낸 행복의 조건』. 서울: 부키.
- Siegel, B. S. & Hum, C. J. (2020). *No ending, only beginnings*. 강이수 역(2021). 『비긴 어게인: 삶의 연습이 끝나고 비로소 최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서울: 위즈덤하우스.
- Tolle, E. (2005). *A new earth: Awakening to your life's purpose*. 류시화 역(2013).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서울: 연금술사.

## ABSTRACT

### **A Study on a Dimensional Approach in the Life Act 2 Design**

**Yun, Yeo Kak**

Dept. of Education

KNOU

With the advent of the age of 100 years of life and the age of lifelong employment, we must try to step back from the first act of a normal life and switch to the second act of life at a certain point. The equivalent of this attempt is to design the second act of life. Since the early 2000s,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s on the second act of life and the design of the second act of life. Since they are based on deep reflection or research on specific experiences, these works provide insight and implications for designing the second act of life. In this paper, I tried a dimensional approach that considers various dimensions of connecting to life for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perspective, even when referring to those works. Time, space, matter, relationship, and activity dimension and attitudes of each of them were examined, and two topics to be considered first at each dimension were presented. Furthermore, since it is more effective to work with multiple people to design the second act of life rather than doing it alone, I recommended organizing a learning club or participating in an educational program with expert

assistance. Finally, since there may be wounds engraved in the heart in the first act of life, I recommended that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econd act of life be combined with the healing process.

| **Key Words** | Life Act 2, Life Act 2 design, dimensional approach, healing, lifelong education